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9호

(2026/여름)

제1저자, starriday@gmail.com

한국 청소년의 시간 경험에 대한 가톨릭 교육적 성찰

입시의 크로노스에서 '동반'의 카이로스로

김홍주(계성고등학교 · 가톨릭교육학 · 교사)

<https://doi.org/10.21738/JHS.2026.8.59.321>

I. 서론

■ “시간이란 무엇이오니까”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성인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가 『고백록』 제11권에서 던진 이 물음은 오래된 철학적 수수께끼처럼 들린다. 그는 “아무도 묻는 이가 없으면 아는 듯하다가도 막상 묻는 이에게 설명하려 들자면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고 고백하였다.¹ 시간은 누구나 매 순간 살아내지만 막상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이 물음은 한가한 사변이 아니라 매일의 생존 문제로 다가온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학원과 자습, 모자란 잠, 끝없이 밀려오는 평가와 마감 속에서 청소년에게 시간은 음미할 선물이 아니라 관리하고 소진해야 할 자원으로 경험된다.

이 경험의 무게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자살은 십수 년째 이 연령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²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한 세대가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더 깊은 위기이다. 청소년은 가장 많은 시간을 미래를 위해

1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고백록』, 최민순 옮김, 바오로딸, 2015, 492~493쪽(XI, 14).

2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청소년 통계』;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24.

쓰고 있지만, 정작 그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살아내지는 못한다.

이 위기를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가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흔히 청소년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쉼 틈이 없다’는 양(量)의 언어로 진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핵심이 양이 아니라 의미에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위기는 시간이 모자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한 인격으로 빚어지는 시간으로 경험할 지평을 잃어버린 문제이다. 그래서 자유 시간을 더 준다고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문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틀이기 때문이다.

이 진단은 곧바로 교육철학의 근본 물음과 만난다. 교육이란 결국 사람이 시간 속에서 한 인격으로 형성되어 가도록 돕는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형성(形成, formation / Bildung)이 자라나는 바탕이다. 한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와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시간이 측정과 성과의 단위로 환원될 때 무너지는 것은 단지 정서적 안녕이 아니라 ‘형성으로서의 교육’ 그 자체이다. 청소년의 시간 경험은 이처럼 교육철학이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이며, 동시에 인간을 하느님 앞에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신학적 인간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신학과 교육철학이 만나는 이 자리는 다름 아닌 가톨릭 교육의 고유한 지평이다.

본 연구는 교육철학의 형성론과 그리스도교의 시간 이해 등 두 전통을 한자리에서 대화시켜, 청소년의 시간을 다시 읽는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한국 청소년의 고통은 풍부한 사회과학적 자료로 진단되어 왔으나, 그것을 시간이라는 깊은 범주로까지 읽어 내지는 못하였다. 반대로 그리스도교의 시간 신학과 교육철학의 형성론은 두텁게 쌓여 왔으나, 오늘날 청소년의 구체적 현실과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공백에 주목하여, 사회과학적 진단을 출발점으로 삼되 논의의 축을 인간과 시간과 형성에 관한 가톨릭 교육적 물음에 두고, 그로부터 동반의 자리라는 구체적 원리를 도출하는 것을 고유한 기여로 삼는다.

본 연구는 개념적 재구성(conceptual reconstruction)을 목적으로 하는 해석학적·이론적 성찰이다. 본 연구가 말하는 청소년은 한국의 중·고등학생 연령대를 중심으로 한다. 검토 대상은 성경과 아우구스티누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차 문헌, 교육철학의 형성 이론, 그리고 한국 청소년의 시간 경험에 관한 통계 자료이며, 문헌은 양적 포괄성보다 개념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근거가 되는 사회과학 통계는 인과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 청소년의 시간 경험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는 현상 진단의 배경으로 쓰인다. 논의는 다음 순서로 전개된다. II장에서 시간을 다시 보게 하는 네 개의 이론 축을 세우고, III장에서 이 네 축을 그대로 분석 틀로 삼아 한국 청소년의 시간 경험을 네 차원에서 분석한다. IV장에서는 그 회복의 실천 원리로 동반(同伴)의 자리를 제안한다. 동반이란 청소년을 밖에서 돕거나 조언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함께 머무는 교육적·사목적 실천을 뜻한다. 여기서 동반의 네 계기 — 현존·청취·재해석·지속 — 를 앞서 세운 네 축에 하나씩 대응시키고, 각 계기가 가정·본당·가톨릭 학교라는 구체적 자리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함께 밝힌다. 끝으로 V장에서 논의를 종합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청소년의 시간 위기는 크로노스에 갇힌 위기이며, 그 회복은 그들의 시간을 형성의 카이로스로 되임도록 함께 걸어 주는 동반을 통해 이루어진다.

II. 이론적 배경

■ 이 장은 청소년의 시간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서로 다른 전통에서 온 네 개의 축을 세우되, 이들은 하나의 공통된 통찰로 수렴한다. 곧, 시간은 균질하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빚어지는 질적이고 형성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처음 세 축은 그리스도교 신학 전통에서, 마지막 축은 교육철학에서 끌어 올리지만, 네 축의 결론은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네 축은 다음 장에서 한국 청소년의 시간을 분석하는 네 개의 렌즈로 그대로 사용될 것이다.

1. 성경의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성경은 시간을 두 결로 구분한다. 크로노스(χρόνος)는 시계가 재는 양적·연속적 시간이고, 카이로스(καιρός)는 결단과 만남이 일어나는 질적·결정적 ‘때’이다. 델링(G. Dellling)과 쿨만(O. Cullmann, 1902~1999)의 고전적 연구가 보여주듯이, 신약성경에서 카이로스는 하느님의 구원이 역사 안에서 무르익어 실현되는 충만한 순간을 가리키는 핵심 개념이다. 다만 이 구분은 크로노스를 나쁜 시간으로, 카이로스를 좋은 시간으로 가르는 이분법이 아니다. 삶에는 측정되고 계획되는 크로노스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크로노스가 시간 전체를 독점하여 카이로스가 열릴 자리를 닫아 버릴 때 비로소 생겨난다.³ 카이로스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과 행위가

3 G. Dellling, “καιρός”, in G. W. Bromiley(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Abridged in One Volume*, Grand Rapids, MI: Eerdmans, 1985, pp.344~345; O. Cullmann, *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hristian Conception of Time and History*, rev. ed., F. V. Filson(trans.), London: SCM Press, 1962(재간 Eugene: Wipf & Stock, 2018), pp.39~60.

집약되는 의미의 정점이다.⁴ 예수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르 1,15)고 선포할 때, 바오로가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입니다”(2코린 6,2)라고 외칠 때, 이 카이로스의 충만함이 선언된다.

이 구분은 교육철학의 오랜 통찰과 곧바로 만난다. 모든 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것은 아니며, 어떤 순간은 한 사람의 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계기로 열린다. 교육학에서는 이를 ‘교육적 순간’(teachable moment), 곧 가르침과 배움이 무르익어 열리는 질적 계기라 부른다.⁵ 미리 계획표에 적어 둘 수 없고 측정할 수도 없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한 사람의 시야가 열리고 마음이 움직인다. 카이로스는 이 교육적 순간의 신학적 원형이라 할 수 있다.⁶ 시간을 카이로스로 읽는다는 것은, 입시를 향해 똑같이 흘러가는 듯이 보이는 청소년의 하루 속에도 형성과 만남의 결정적 순간이 깃들어 있음을, 그리고 교육이란 바로 그 순간이 열리도록 함께 기다리는 일임을 보는 것이다.

성경은 더 나아가 고통의 시간조차 카이로스가 될 수 있음을 증언한다. 탄식 시편(시편 13, 22, 88편)을 분석한 브루그만(W. Brueggemann, 1933~2025)과 베스터만(C. Westermann, 1909~2000)에 따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은 신앙의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⁷ “주님, 언제까지 마냥 저를 잊고 계시렵니

4 쿨만은 카이로스를 구원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 시점으로 규정한다. O. Cullmann, *op.cit.*, pp.39~45.

5 ‘교육적 순간’(teachable moment)은 R. J. Havighurst가 1953년 저작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한 사람이 어떤 발달 과제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때, 곧 가르침의 때와 배움의 때가 만나 학습이 무르익는 질적 계기를 가리킨다(R. J. Havighurst,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Green, 1953 참조). 이 개념이 교육과정의 구체적 실천으로 발전된 양상에 관해서는 E. Hyun & J. D. Marshall, “Teachable-Moment-Oriented Curriculum Practi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1(2003), pp.111~127 참조.

6 질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로서의 카이로스가 좋은 가르침의 핵심 조건을 이룬다는 분석으로는 R. Heilbronn, “Kairos and phronesis in teaching well”,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59/3-4(2025), pp.718~727 참조.

7 W. Brueggemann, *The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C.

까?”(시편 13,2)라는 울부짖음, 하느님께 따져 묻던 욕의 항변(욥 13,3 참조)과 그 끝에 이루어진 만남의 고백(욥 42,5)은 절망의 시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부르짖고 더 진실하게 만날 수 있는 때임을 보여 준다. 청소년이 겪는 좌절과 불안의 시간 역시 이 탄식의 전통 안에서 다시 읽힐 수 있으며, 그 재해석 안에서 고통의 시간은 하느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변모한다.

신약성경에서 카이로스의 또 다른 표현은 요한 복음의 ‘때’(ώρα)이다. 예수는 여러 차례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요한 2,5; 7,30 참조)고 하다가 수난을 앞두고 이제 때가 왔다고 선언하는데(요한 12,23 참조), 그 때는 고통과 죽음의 때이자 영광의 때이다. 하느님의 시간이 인간의 기대와 달리 때로 실패와 고통의 형태로 찾아오듯이, 청소년이 겪는 좌절의 시간 역시 하느님의 카이로스가 숨겨진 방식으로 역사하는 때일 수 있다.

2. 아우구스티누스: 영혼의 시간 — 펼쳐짐과 지향

시간에 관한 가장 깊은 성찰 가운데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Confessiones) 제11권에 있다. 그는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으며 현재는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간을 객관적 사물로 붙잡으려는 시도가 좌초함을 직시한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연다. 시간은 바깥에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내면에서 경험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⁸

Westermann,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K. Crim/R. N. Soulen(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pp.165~194.

- 8 아우구스티누스, 앞의 책, 510~511쪽(XI, 26). 이러한 내면적 시간 이해에 대한 분석은 G. O'Daly, *Augustine's Philosophy of Mind*, London: Duckworth, 1987; P. Ricoeur, *Time and Narrative*, vol. 1, K. McLaughlin/D. Pellauer(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p.5~30.

이 전회는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엄밀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을 ‘길다’ 혹은 ‘짧다’고 재지만, 이미 없는 과거와 아직 없는 미래는 그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앞에서 말한 통찰은 소리와 음절의 길이를 재는 일상의 경험을 파고들어, 우리가 실제로 재는 것은 지나가 버린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정신에 남긴 인상(affectio)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천체의 운동과 동일시하던 고대의 통념을 논박하고 측정의 자리를 정신 안으로 옮겨 놓은 이 논증은, 후설과 하이데거를 거쳐 리쾨르의 시간 분석에 이르기까지 현대 시간철학이 거듭 되돌아가는 원점이 되었다.⁹

폴 리쾨르(P. Ricoeur, 1913~2005)가 『시간과 이야기』(Temps et récit)에서 정밀하게 분석했듯이, 아우구스티누스 시간론의 핵심은 영혼의 시간(distentio animi)이라는 개념이다.¹⁰ 이 개념은 시간을 외부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라 내면적 경험의 사건으로 전환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사유의 정점이다. 그에 따르면 시간 경험은 세 현재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의 현재는 기억(memoria), 현재의 현재는 직관(contuitus), 미래의 현재는 기대(expectatio)이다.¹¹ 오데일리(G. O'Daly)가 분석하듯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시간은 천체의 운동에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 안에서 측정되는 것이며, 그 측정에는 기억이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한다. 곧 시간은 인간이 수동적으로 겪는 외적 흐름이 아니라, 영혼이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자기를 펼치며 빛어가는 내면의 사건이다.

9 이 분석이 현대 시간철학에서 지니는 위상에 관해서는 P. Ricoeur, *op.cit.*, pp.5~30 참조.

10 P. Ricoeur, *op.cit.*

11 아우구스티누스, 앞의 책, 501~502쪽(XI, 20). 이 세 현재에 대한 분석은 G. O'Daly, *op.cit.*, pp.156~157 참조.

다만 이 개념에 대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distentio animi*는 직역하면 ‘영혼의 늘어남·펼쳐짐’으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양가적인 개념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인간이 시간을 살아가는 조건 자체를 가리킨다. 영혼이 앞서 본 세 현재로 자신을 펼치기에, 이미 없는 과거와 아직 없는 미래가 정신 안에서 헤아려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이신 분을 향하지 못한 채 ‘여럿 속으로’(in multa) 찢겨 흩어지는 실존의 곤경을 가리키기도 한다.¹²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흩어짐에 맞서 영혼이 하나를 향해 모아지는 지향(intentio)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tentio가 distentio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방향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시간을 사는 인간에게 펼쳐짐 자체는 피할 수 없으며, 문제는 그 펼쳐짐이 의미의 지향 안에서 통합되는가, 아니면 방향을 잃고 흩어지는가이다. 본 연구가 이하에서 ‘영혼의 시간’이라 부르는 것은, 영혼이 기억과 기대 사이에 펼쳐진 채로도 흩어지지 않고 현재를 의미 있게 엮어 가는 활동, 곧 지향(intentio)에 의해 방향을 얻은 펼쳐짐(distentio)을 가리킨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육철학의 형성 개념과 깊이 공명한다. 영혼의 시간, 곧 지향 안에서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현재를 의미 있게 엮어 가는 영혼의 활동은, 한 인격이 시간 속에서 자기를 형성해 가는 과정 자체와 다르지 않다. 한 청소년이 같은 책상 앞 같은 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날은 그 시간이 진로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충만하게 흐르지만, 다른 날에는 똑같은 책 앞에서 한없는 권태와 무의미로 무너진다. 객관적 시간의 길이는 동일하지만, 그 시간이 내면에서 어떻게 경험되는가는 전혀 다르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날 더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를 어떤 기억과

12 아우구스티누스, 앞의 책, 517~518쪽(XI, 29).

기대의 지평 안에 놓였는가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 영혼의 지향은 궁극적으로 영원(aeternitas)과의 관계에서 그 방향을 얻는다. 그는 『고백록』의 첫머리에서 “당신을 기쁨으로써 즐기라 일깨워 주심이오니 님 위해 우리를 내시었기 님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찻찻하지 않삽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인간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고 하느님 이외에 그 무엇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분명히 나타낸다.¹³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청소년이 겪는 불안과 방황은 단지 사회 구조의 산물만은 아니다. 입시의 성취가 이 갈망을 끝내 채울 수 없는 까닭은 영혼의 안식처가 측정 가능한 성과 너머에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그 불안은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열망으로 인도되어야 할 것이다.¹⁴

그렇다면 이 영혼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길은 앞서 본 대로 지향(intentio)에 있다.¹⁵ 영혼이 자신의 현재를 더 큰 이야기 —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어디론가 불리고 있다는 이야기 — 안에 놓을 때, 지금 이 순간은 단절된 점이 아니라 의미의 흐름 안에 놓인 한 지점이 된다.¹⁶ 반대로 이 지향이 무너질 때 시간은 기억도 기대도 없이 오직 지금의 성과라는 한 점으로 환원된다.¹⁷ 본 연구는 청소년이

13 아우구스티누스, 앞의 책, 29~31쪽(I, 1).

14 청소년기의 불안을 단순한 병리가 아니라 의미를 향한 실존적 추구와 결부해 이해하는 관점에 관해서는 V. E. Frankl,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Press, 1963; S. L. Berman, C. F. Weems & T. R. Stickle, "Existential Anxiety in Adolescents: Prevalence, Structure,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Symptoms and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2006), pp.303~310 참조.

15 아우구스티누스, 앞의 책, 517~518쪽(XI, 29).

16 A.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3rd ed.,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pp.204~225; P. Ricoeur, *Oneself as Another*, K. Blamey(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p.140~168.

17 심한 우울에서는 미래가 열린 가능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현재가 굳어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경험된다. T. Fuchs, "Temporality and psychopathology",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

호소하는 공허와 번아웃을 바로 이 축의 붕괴와 맞물린 내면의 현상으로 읽으며, 그 경험적 상관물은 우울감과 소진의 지표로 나타난다. 교회와 교육 공동체가 청소년에게 시간의 새로운 의미를 전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으며, 그 전달은 말이나 설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년의 시간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현존에서 실현된다.

3. 프란치스코 교황: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

세 번째 축은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 재위 2013~2025)의 시간 이해에서 온다. 교황은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22~225항에서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는 원리를 제시한다.¹⁸ 공간을 차지하려는 욕망은 즉각적 결과와 가시적 성과, 자리 선점을 좇지만, 시간을 사는 일은 과정과 인내, 더디게 무르익는 성숙을 향한다. 교황의 설명에 따르면 이 원리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보다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담는다.¹⁹ 이는 성과와 효율로 모든 것을 재는 현대 문화를 향한 근본적 비판이며, 교황의 사목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같은 문헌에서 ‘하느님은 시간 안에 사신다’고 선언한다.²⁰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곧 강생(Incarnatio)의 신비는 인간의 시간이 하느님의 현존으로 이미 기록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살아가는 고단한 시간도

12/1(2013), pp.75~104 참조. 성과 압박 속 청소년의 시간 경험은 병리라 할 수는 없으나 이와 유사한 구조가 일상에 열거 깔린 형태로 볼 수 있다.

18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11. 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222~225항.

19 위의 책, 223항.

20 위의 책, 222항.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거룩한 시간이다.²¹ 이 원리는 한국 교육 현실에 직접적인 함의를 지닌다. 오늘의 교육은 사실상 공간 확보의 논리에 지배된다.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이라는 자리를 선점하지 못한 시간은 낭비된 시간으로 규정된다.²² 그러나 교황의 통찰을 따르면,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시간은 목표를 향한 빈 수단이 아니다. 그 시간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관계가 깊어지며 하느님과의 관계가 자라난다. 교육이 본래 결과의 선점이 아니라 과정의 동반임을 떠올린다면, 이 원리는 그대로 교육철학적 선언으로 읽힌다.

여기에 그리스도교는 한 가지 강력한 통찰을 더한다. 복음서는 예수가 공생활 이전 약 30년을 나자렛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냈다고 전한다. 루카 복음서는 열두 살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한 일을 전한 뒤(루카 2,41-52), 나자렛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루카 2,51)고 기록한다. 가톨릭 전통은 이 시간을 ‘나자렛의 감추어진 생활’(vita occulta; 콜로 3,3에 따라 vita abscondita라고도 함)이라 부른다. 『가톨릭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는 나자렛에서의 이 감추어진 생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삶의 가장 일상적인 길에서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가르치며, 그것이 공생활을 위한 단순한 준비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구원이 이루어진 시간이었음을 분명히 한다.²³ 과르디니(R. Guardini, 1885~1968)와 갈로(J. Galot)의 연구 또한 이 숨은 생활을, 하느님의 아들이 나자렛의 평범한 노동과 일상을 온전히 받아들여 거룩하게 하

- 21 강생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과 결합하였다는 가르침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1965, 12. 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22항.
- 22 강창동, 「한국의 편집증적 교육열과 신분 욕망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14/2(2008), 5~32쪽.
- 23 교황청, 『가톨릭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1997, 8. 15),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리교육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533항.

신 강생의 시간으로 조명한다.²⁴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시간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형성과 친교가 일어나는 충만한 자리라는 이 통찰은, 수업을 듣고 밥을 먹고 친구와 다투고 잠을 자는 청소년의 평범한 하루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한다.

같은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에서 청소년기 자체의 가치를 분명히 한다. 교황은 청소년기와 젊음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의 단계이지 어른이 되기 전의 과도기가 아님을 선언한다.²⁵ 이는 한국 사회가 청소년의 시간에 부과하는 도구적 의미, 곧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준비라는 이해에 정면으로 맞서는 도전이다. 교황은 또한 성경의 젊은이들 — 부름받은 아브라함,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예언자로 불린 어린 예레미야,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모 마리아 — 을 언급하며, 오늘의 청소년 역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 아래 있음을 일깨운다.²⁶ 나아가 교황은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강조한다.²⁷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시간이 이미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다는 이 선언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청소년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존재의 든든한 기반을 제공한다.

24 R. Guardini, *The Lord*, E. C. Briefs(trans.), Chicago: Regnery, 1954, pp.20~21; J. Galot, *Who Is Christ? A Theology of the Incarnation*, M. A. Bouchard(trans.), Chicago: Franciscan Herald Press, 1981, pp.349~350.

25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 2019. 3. 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134~135항.

26 위의 책, 6~21항.

27 위의 책, 246항.

4. 교육철학적 형성: 시간은 사람을 빛는 터전이다

앞의 세 축이 신학 전통에서 걸어 올린 것이라면, 마지막 축은 교육철학에서 온다. 그러나 그 결론은 다르지 않다. 근대 교육철학의 형성(Bildung) 개념은 교육을 지식의 주입이나 기능의 훈련이 아니라, 한 인격이 세계와 만나며 자기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²⁸ 형성은 본질적으로 시간적이다. 그것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더디게 무르익으며, 예측할 수 없는 만남과 시련을 통과하며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형성은 앞서 살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시간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인간은 시간을 살아내면서 동시에 시간 속에서 자기를 빛어 간다.

형성 개념이 처음부터 시간과 결부되어 있었음은 그 사상사적 뿌리에서 드러난다. 훔볼트(W. von Humboldt, 1767~1835)에게 형성은 인간이 세계와의 풍부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펼쳐 가는 평생의 과정이었으며, 가다머(H.-G. Gadamer, 1900~2002)는 이를 이어받아 형성이란 결코 도달되어 끝나는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 가는 도상의 운동임을 강조하였다.²⁹ 형성에는 완결의 시점이 없으며, 바로 그렇기에 형성은 측정되거나 앞당겨질 수 없다. 한 사람이 형성된다는 것은 정해진 양의 지식을 채워 넣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것들을 자기 안에서 천천히 소화하여 한

28 근대 형성(Bildung) 개념은 W. von Humboldt에게서 비롯하여 독일의 형성(Bildung) 전통으로 이어진다. 이 개념의 고전적 정식화는 W. von Humboldt, "Theory of Bildung", G. Horton-Krüger(trans.), in *Teaching as a Reflective Practice: The German Didaktik Tradition*, I. Westbury, S. Hopmann & K. Riquarts(eds.),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0, pp.57~61에 있으며, 그 사상사적 전개를 정리한 연구로는 W. H. Bruford, *The German Tradition of Self-Cultivation: 'Bildung' from Humboldt to Thomas Man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pp.1~28 참조.

29 H.-G. Gadamer, *Truth and Method*, J. Weinsheimer/D. G. Marshall(trans.), 2nd rev. ed., London: Continuum, 2004, pp.8~17.

인격으로 통합해 가는 일이다. 이 통합에는 고유한 시간의 리듬이 있으며, 그 리듬을 외부의 일정에 맞추어 강제로 단축할 때 형성은 오히려 왜곡된다.

현상학적 교육학자 막스 반 마넨(M. van Manen, 1942~)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을 객관적 시계 시간과 구별해 ‘체험된 시간’(lived time)이라 부른다.³⁰ 체험된 시간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함께 늘어나고 줄어든다. 시험을 앞둔 한 주는 끝없이 길고, 친구들과 보낸 오후는 순식간에 지나간다. 교육이 다루어야 할 시간은 시계가 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바로 이 체험된 시간이며, 형성이란 이 체험된 시간의 결을 함께 빚어 가는 일이다. 가르침이 한 사람의 내면에 닿게 되는 것은 진도표의 어느 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은 형성이 자라나는 터전, 곧 한 사람이 그 안에서 빚어지는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성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형성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는 시간 안에서 비로소 일어난다.³¹ 교사와 학생이 함께 보내는 시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세계를 건네주는 시간이 곧 형성의 시간이다. 한나 아렌트(H. Arendt, 1906~1975)가 교육을 두고 어른이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대를 맞아들이는 일이라 말한 것도 같은 통찰을 담는다.³² 새로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되어 세계 안으로 들어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교육은 그 시간을 서둘러 건너뛰지 않고 함께 건디며 지켜 주

30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pp.101~106.

31 형성의 관계적 성격에 관해서는 M. Buber, *I and Thou*, W. Kaufmann(tra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N. Noddings,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2, pp.15~17.

32 H. Arendt, "The Crisis in Education", in *Between Past and Future: Eight Exercises in Political Thought*, New York: Viking Press, 1961, pp.173~196(특히 p.189).

는 일이다.³³ 형성의 시간을 박탈한다는 것은 곧 이 관계적 기다림의 자리를 없애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네 축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성경의 카이로스는 질적이고 결정적인 시간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시간은 펼쳐짐이 지향 안에서 통합되는 내면의 시간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는 과정으로서의 시간을, 그리고 교육철학의 형성과 체험된 시간은 사람을 빛의 터전으로서의 시간을 가리킨다.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이 함께 증언하는 바는 일치한다. 시간은 측정되어 소진되는 자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안에서 형성되어 가는 질적이면서도 은총이 가득한 차원의 사건이다. 이 통찰이 다음 장에서 한국 청소년의 시간을 분석하는 네 개의 렌즈가 된다.

III. 한국 청소년의 시간 경험

■ 이 장은 앞에서 세운 네 축을 토대로, 한국 청소년의 시간 경험을 카이로스의 상실, 영혼의 시간의 붕괴, 공간 논리의 지배, 형성 시간의 박탈이라는 네 차원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논지는, 이 네 차원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하나의 사태를 가리키며, 따라서 청소년의 시간 위기는 부분적 결함이 아니라 시간 이해 전체의 붕괴라는 점이다.

33 새로운 사람의 탄생성(natality)에 관해서는 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p.8~9, 247 참조.

1. 카이로스의 상실: 측정에 갇힌 시간

첫째 축, 곧 성경의 카이로스에 비추어 보면, 한국 사회가 청소년에게 부과하는 시간은 철저히 크로노스의 언어로 측정된다. 이는 추상적 진단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되는 현실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도 평일 학습시간이 3시간 이상인 초·중·고등학생이 38.6%에 이르고 그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80.0%에 달한다.³⁴ 학습 시간이 늘어난 만큼 잠은 줄어든다. 고등학생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약 6시간으로 권장 수면시간에 크게 못 미치며, 약 44%가 6시간 미만의 잠을 잔다.³⁵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몇 등급을 받았는지가 시간의 가치를 정하는 이 구조 안에서, 시간은 주로 양으로 환산되어 관리·평가되는 대상이 되며, 그 안에서 결정적 의미가 열리는 때로는 좀처럼 경험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카이로스의 차원, 곧 지금 이 순간이 형성과 만남의 때가 될 수 있다는 지평이 뒤로 밀려나기 쉽다.

이 상실은 단순히 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청소년의 하루에서 교육적 순간이 들어설 자리가 지나치게 위축되었음을 뜻한다. 미리 계획표에 적을 수 없고 측정할 수도 없는 그 질적 계기는, 모든 시간이 성과로 환산되는 구조 안에서 비효율로 간주되어 밀려난다. 삶의 의미를 묻는 학생에게 한 교사가 응답하는 시간, 친구의 아픔에 함께 머무는 시간, 까닭 없는 경이에 잠기는 시간은 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으로 분류된다. 카이로스가 사라진 시간표 안에서 청소년은 매 순간을 살면서도 어떤 순간도 깊이 살지 못한다. 더

3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24;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앞의 글, 12쪽.

3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앞의 글.

육이 좌절과 고통의 시간조차 하느님과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 구조 안에서 사유되기 어려우며, 실패한 시간은 버려진 시간으로 규정되고는 한다.

2. 영혼의 시간의 붕괴: 기억과 기대를 잃은 현재

둘째 축, 곧 아우구스티누스의 눈으로 보면, 청소년의 시간은 지향(intentio)을 잃은 채 방향 없는 펼쳐짐(distentio)에 내맡겨진 상태, 곧 영혼의 시간이 무너진 상태에 있다. 기억과 기대 사이에서 현재를 의미 있게 엮어 가는 영혼의 활동이, 오직 지금의 성과라는 한 점으로 짓눌린다. 이 붕괴는 청소년의 기대 지평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보여 주는 통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청소년이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좋은 직업(직장)을 갖기 위해서’를 꼽은 비율이 74.9%로 가장 높았다.³⁶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불리는지에 대한 더 큰 이야기 속에 현재를 놓는 일이 불가능해질 때, 남는 것은 맥락을 잃은 채 고립된 지금 뿐이다. 곧 청소년에게 시간은 스스로의 내면과 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부과된 목표를 향해 비워 내야 할 통로가 되었다.

이 붕괴가 낳는 내면의 현상이 바로 청소년이 호소하는 공허와 번아웃이다. 이는 정신건강 지표로 확인된다. 2024년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여학생 49.9%), 우울감 경험률은 27.7%(여학생 32.5%)로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다.³⁷ 기대가 오직 다음 시험으로

36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앞의 글, 13쪽.

37 위의 글, 6쪽;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교육부·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2015~2024(<https://doi.org/10.56786/PHWR.2025.18.46.3>) 참조.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학업소진이 가중되고 학업열의가 낮아지는 실증적 양상에 관해서는 장윤옥·정서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5/1(2017),

좁혀지고 기억이 지난 등급으로 환원될 때, 현재는 더 큰 의미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와 견뎌야 할 무게로만 다가온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의 불안을 하느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으로 읽었음을 기억한다면,³⁸ 청소년의 불안 역시 단순히 억눌러야 할 증상이 아니라 출구를 찾지 못한 의미에의 열망일 수 있다. 그러나 측정 가능한 성과만을 보상하는 구조는 이 열망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는커녕, 그것을 성적에 대한 불안으로 끊임없이 환원하여 영혼의 시간의 통합을 가로막는다.³⁹

3. 공간 논리의 지배: 선점의 문화와 평가절하된 일상

셋째 축, 곧 프란치스코 교황의 원리로 보면, 한국 교육은 전형적인 공간 확보의 문화이다. 교황의 구분을 빌리면, 공간의 논리는 즉각적 결과와 자리 선점을 쫓고, 시간의 논리는 더디게 무르익는 과정을 향한다.⁴⁰ 수능 시험 한 문제가 인생의 궤도를 바꾼다고 믿는 작금의 한국 사회는, 시간 안에서 천천히 익어 가는 형성을 견디지 못한다. 좋은 대학, 좋은 성적이라는 자리를 선점하는 일이 절대적 목표가 될 때, 그 자리에 곧장 기여하지 않는 시간은 모두 낭비된 시간으로 규정된다.⁴¹

195~223쪽.

38 아우구스티누스, 앞의 책, 29~31쪽(1, 1).

39 강문비 · 이우걸 · 송주연, 「학생이 지각한 부모 성취압력과 자녀의 학업성취, 시험불안, 스트레스 및 자아 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35/2(2021), 365~392쪽.

40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22~223항.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는 원리에 대한 분석으로는 M. Borghesi, *The Mind of Pope Francis: Jorge Mario Bergoglio's Intellectual Journey*, B. Hudock(trans.),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18.

41 수능과 입시 경쟁이 시간을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환원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에 관해서는 강창동, 앞의 글; 이견만,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교육사회학연구』 17/4(2007), 63~85쪽.

이러한 진단은 한국 교육 경쟁을 다룬 교육사회학 연구들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 교육의 과열 경쟁이 학력·학벌이라는 ‘지위 획득’을 둘러싼 구조적 경쟁의 성격을 지니며, 그 결과 교육이 인격 형성의 과정이 아니라 서열 위의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원되어 왔다는 분석은 교육사회학에서 오래도록 축적되어 왔다.⁴² 이 경쟁의 역설은 성취 지표에서 드러난다. 한국 학생은 학업 성취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도 삶의 만족도에서는 OECD 평균을 밑돈다. PISA 2022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학생은 한국이 22%로 OECD 평균(18%)보다 높았다.⁴³

공간 논리가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평가절하되는 것은 청소년의 평범한 일상이다. 가시적 성과를 아직 내지 못한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대기 시간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핀 나자렛의 숨은 생활은 정반대를 증언한다. 청소년의 평범한 하루는 공간 논리 안에서 미래를 위해 소비되는 빈 준비기에 지나지 않지만, 시간 논리 안에서는 그 자체로 한 인격이 빛어지는 거룩한 시간이다.⁴⁴ 공간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 이 숨은 생활의 의미가 깃들 자리는 끝내 사라진다.

4. 형성 시간의 박탈: 빛어질 시간을 빼앗긴 청소년

넷째 축, 곧 교육철학의 형성 개념으로 보면, 앞의 세 차원은 결

42 한국 교육 경쟁의 지위 획득 경쟁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견만, 위의 글, 63~85쪽 참조.

43 OECD, PISA 2022 Results (Volume I and II) Country Notes: Korea, Paris: OECD Publishing, 2023.

44 일상의 평범한 시간 자체가 거룩함이 빛어지는 자리라는 가르침에 관해서는 교황 프란치스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 2018, 3, 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14항; 16~18항.

국 하나의 사태로 수렴한다. 형성의 시간이 박탈되었다는 것이다. 시간이 측정 가능한 성과로만 환원될 때, 교육이 본래 돌보아야 할 체험된 시간, 곧 한 사람이 자기를 빚어 가는 시간의 결은 설 자리를 잃는다. 형성은 고유한 리듬을 따라 더디게 무르익는 과정인데, 그 리듬을 외부의 일정에 맞추어 강제로 단축할 때 형성은 일어나는 대신 왜곡된다.⁴⁵ 이 박탈이 드리우는 가장 무거운 그늘이 청소년 자살이다. 청소년 자살은 2011년 이후 십수 년째 이 연령대 사망 원인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그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11.7명(2023년)으로 OECD 평균(약 6.0명)의 두 배에 이른다.⁴⁶ 물론 자살은 여러 요인이 얹힌 복합적 현상이므로 이를 시간 의미의 붕괴만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자신의 시간을 살아낼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한 세대가 깊이 지쳐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무거운 징후로 읽을 수 있다.

이 박탈은 한국만의 특수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 배후에는 문화적 차원의 변동이 함께 작용한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 Bauman, 1925~2017)은 현대를 ‘유동하는 근대’(liquid modernity), 곧 모든 관계와 제도가 견고한 형태를 잃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대로 규정한다.⁴⁷ 고정된 소속과 의미의 체계가 흔들리는 시대에 개인은 자신의 시간 안에서 방향을 잃기 쉽다. 더 나아가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H. Rosa, 1965~)는 현대 사회의 핵심 병리를 ‘사회적 가속’(social acceleration)에서 찾는다. 기술과 사회 변화, 생활 속도가 서로를 부추

45 삶의 고유한 시간 구조가 사회적 가속에 의해 압축되고 왜곡되는 양상에 관해서는 H. Rosa, *Social Acceleration: A New Theory of Modernity*, J. Trejo-Mathys(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pp.123~130.

46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앞의 글.

47 Z. Bauman,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2000, pp.1~3(Foreword: On Being Light and Liquid).

가며 가속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도록 내몰리고 시간은 결코 충분할 수 없는 희소 자원으로 경험된다.⁴⁸ 한국 청소년이 호소하는 시간 압박은, 이 유동성과 가속의 흐름이 입사라는 통로를 거쳐 가장 날카롭게 모여든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형성 시간의 박탈은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관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존재로 이해하며, 이 모상성은 인간이 결코 생산과 성과의 단위로 환원될 수 없음을 뜻한다.⁴⁹ 그러나 입시 구조가 청소년을 오직 성과의 크기로만 규정할 때, 이 인간 이해는 근본적으로 침해된다. 청소년이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단지 심리적 불행이 아니라, 측정될 수 없는 존엄이 측정 가능한 성과로 축소되는 사태이다.⁵⁰ 형성의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한 사람이 무엇이 되어갈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며, 동시에 그가 함께 빛어질 관계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청소년의 시간 위기는 네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붕괴이다. 카이로스의 상실, 영혼의 시간의 붕괴, 공간 논리의 지배, 형성 시간의 박탈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사태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진단은 회복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일러 준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형성의 카이로스로 되임도록 함께 걸어 주는 누군가이다.

48 H. Rosa, *op.cit.*, pp.71~80.

49 『가톨릭교회 교리서』, 355~357항; 창세 1,27 참조.

50 인간의 존엄이 그 모상성(imago Dei)에 뿌리를 두며 어떠한 성취나 효용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는 가르침에 관해서는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 10. 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105~108항.

IV. 제안: 동반의 자리

Ⅱ장 및 Ⅲ장의 분석은 시간과 형성에 관한 보편적 지평에서 전개되었으나, 이제 IV장의 처방은 가정·가톨릭 학교·본당·교회 공동체라는 가톨릭적인 자리에서 구체화된다. 이는 자의적 축소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 방법적 선택이다. 첫째, 본 연구가 세운 네 축 가운데 세 축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왔으므로, 그 통찰이 가장 온전한 형태로 실천되고 검증될 수 있는 일차적 자리 역시 그 전통이 실제로 살아 있는 공동체이다. 둘째, 동반은 시간과 관계의 양식이므로 그것이 작동하는 구체적 자리에서 기술될 때에만 실천 원리로서 힘을 얻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톨릭 교육의 자리를 동반의 문법이 구체화되는 일종의 실험의 장으로 삼되, 그 문법이 존엄·의미·관계·기다림이라는 보편적 교육 언어로 번역될 수 있음을 이 장의 말미에서 함께 보이고자 한다.

회복의 실천 원리를 본 연구는 동반(同伴, accompaniment)의 자리로 제안한다. 동반은 청소년을 바깥에서 돕거나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함께 걷는 일이다. 동반의 신학적 원형은 루카 복음서의 엠마오 이야기(루카 24,13-35)에 있다. 부활한 예수는 절망 속에 걸던 두 제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걷는 방향을 함께 걸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으며, 그들의 실망을 곧장 교정하기보다 먼저 공감했고, 그들이 청할 때에야 비로소 함께 머물렀다. 그리고 빵을 떼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결론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가 선 자리에서 함께 출발하는 이 순서가 동반의 문법이다.⁵¹

51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37항; T. H. Groome, 『생명을 위한 교육: 모든 교사와 부모를 위한 가톨릭의 영적 비전』, 조영관·김경이·우정원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1.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에서 이 엠마오 사건을 청소년 동반의 모범으로 제시한다.⁵² 동반은 청소년이 불안해하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실패하는 시간 안에 함께 머무는 것이다. 헨리 나우웬(H. J. M. Nouwen, 1932~1996)이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처럼, 동반하는 교사와 사목자는 자신도 길 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곁을 걷는다.⁵³ 동반자는 학생의 눈을 대신 열어 주는 자가 아니라, 눈이 열리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이다. 이 엠마오의 문법은 동반을 현존·청취·재해석·지속이라는 네 계기로 구조화한다. 이하에서는 서술의 명료함을 위해 네 계기를 앞서 세운 네 축에 하나씩 대응시키고, 각 계기가 가장 먼저, 가장 특징적으로 뿌리내리는 우선적 자리로 가정·가톨릭 학교·본당·교회 공동체를 제시한다. 다만 이 대응은 배타적 분담이 아니다. 네 계기는 모든 자리에서 함께 요청되며, 각 자리는 그 가운데 한 계기가 가장 두드러지게 구현되는 곳일 따름이다.

1. 현존: 영혼의 시간을 회복하는 가정

동반의 첫 계기는 현존(現存)이다. 현존은 청소년의 삶의 리듬과 시간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걷는 방향을 함께 걷는 것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영혼의 시간의 붕괴에 대한 응답이다. 고립된 지금에 갇힌 청소년 곁에 누군가가 판단 없이 함께 있어 줄 때, 그의 현재는 다시 더 큰 이야기 — 사랑받고 있고 어디론가 불리고 있다는 이야기 — 안에 놓이기 시작한다. 이 현존이 가장 먼저 뿌리내리는 자리

52 교황 프란치스코, 위의 책, 237항.

53 H. J. M. Nouwen,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Garden City, NY: Doubleday, 1972, pp.83~84.

는 가정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에서 가정이 자녀의 성장을 동반하는 첫 공동체임을 강조한다.⁵⁴ 입시 결과로만 자녀의 시간을 채지 않고 그 내면과 함께 있어 주는 부모의 현존, 성적표 너머의 한 인격을 보아 주는 시선이 동반의 첫 자리를 이룬다. 가정이 또 하나의 평가 전초기지가 될 때 청소년은 마지막 안식처마저 잃지만, 가정이 현존의 자리가 될 때 청소년은 자신의 시간이 성과와 무관하게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가정이 현존의 자리가 되는 길은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의 곁에 있다. 함께 밥을 먹는 식탁, 하루의 끝에 나누는 짧은 대화, 실패한 날에도 변함없이 건네지는 환대가 곧 영혼의 시간을 회복시키는 현존이다. 이 현존은 완벽한 부모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모 자신이 불안하고 서툰 채로도, 자녀의 시간 곁에 머무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동반이다. 가정이 이 기다림의 자리가 될 때, 청소년은 자신의 현재가 다음 시험을 위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받는 시간임을 몸으로 배우게 된다. 가정은 이렇게 청소년이 만나는 첫 동반의 학교이며, 다른 모든 자리의 동반이 자라나는 토대가 된다.⁵⁵

2. 청취: 형성의 리듬을 존중하는 가톨릭 학교

둘째 계기는 청취(聽取)이다. 청취는 청소년의 불안과 회의를 교정하기에 앞서 판단 없이 끝까지 듣는 것으로, 형성 시간의 박탈에 대한 응답이다. 한 사람의 더딘 형성의 리듬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

54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016. 3. 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6, 259~290항.

55 T. H. Groome, 앞의 책.

보다 그의 시간을 서둘러 평가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 주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청취가 일상 전체에 걸쳐 펼쳐질 수 있는 자리가 가톨릭 학교이다. 가톨릭 학교는 단순한 학업 기관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 안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동반하는 공동체로 규정된다.⁵⁶ 학교에서 청취는 두 층위에서 구현된다. 하나는 평가의 언어를 바꾸는 학교 문화로, 실패한 듯 보이는 학생의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형성 중인 시간으로 읽어 주는 시선이며, 다른 하나는 교사의 들음으로, 흔들리고 실패하는 학생의 말을 끝까지 들어 주는 교사의 자리이다. 교사가 진도와 성적의 관리자를 넘어 한 학생의 시간을 함께 듣는 동반자로 설 때, 형성의 시간은 비로소 평가의 시간에서 풀려난다.⁵⁷

이 청취가 단지 개인 교사의 덕목을 넘어 하나의 제도적 사명이 되는 까닭은, 가톨릭 학교가 ‘학교의 원형’을 간직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학교를 뜻하는 영어 ‘school’의 어원인 그리스어 스콜레(σχολή)는 본래 ‘여가’, 곧 생존의 노동에서 벗어나 진리를 관조하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리켰다.⁵⁸ 학교는 그 출발에서 효율과 성과의 시간이 아니라 멈추어 사유하고 의미를 음미하는 시간의 자리였다. 또한 학교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지혜와 문화를 건네주는 자리, 곧 아렌트가 말한 ‘세계를 맞아들이는’ 시간의 자리이기도 하다.⁵⁹ 가톨릭 학교는 바로 이 학교의 원형 — 관조의 여

56 교황청 문화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The Catholic School*, 1977. 3. 19),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23~61쪽.

57 학생의 말을 끝까지 듣는 청취가 교육적 돌봄의 핵심임에 관해서는 N. Noddings, *op.cit.*, pp.15~16. 청취를 동반의 일차적 감수성으로 제시한 문헌으로는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92항.

58 학교의 이 원형적 의미에 관해서는 J. Pieper,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A. Dru(trans.), New York: Pantheon Books, 1952, pp.25~26(원저 *Muße und Kult*, 1948). 국역본은 요셉 피퍼, 『여가와 경신』, 김진태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59 교육을 한 문명의 지적·도덕적 유산으로 입문시키는 일로 보는 관점에 관해서는 M. Oakeshott,

가이자 문화의 전수라는 본래 사명 — 을 입시의 크로노스 한복판에서 증언하도록 부름받는다.⁶⁰ 청취는 이 원형을 지키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다. 가톨릭 학교의 교육 철학이 학생의 시간을 성과의 단위로 잘게 쪼개지 않고 한 인격의 형성 과정으로 끝까지 들어 주는 청취의 시간을 중요시한다. 그렇기에 가톨릭 학교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짓눌린 청소년들의 일상에 형성의 시간을 되돌려 주는 학교 본질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물론 가톨릭 학교에 요청되는 것이 청취만은 아니다. 교사의 일상적 현존, 종교 수업과 학교 전례가 건네는 재해석, 재학과 졸업을 넘어 이어지는 관계의 지속은 학교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며, 청취는 그 가운데 학교라는 자리가 가장 고유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결절의 계기일 따름이다.

3. 재해석: 카이로스를 다시 읽는 본당 신앙교육

셋째 계기는 재해석(再解釋)이다. 재해석은 크로노스로 환원된 청소년의 시간을 형성의 카이로스로 다시 읽도록 함께 돕는 것으로, ‘카이로스의 상실’에 대한 직접적 응답이다. 측정에 갇힌 하루 속에 깃든 교육적 순간과 의미의 결을 함께 발견해 가는 일이 곧 재해석이다. 가톨릭 학교가 일상의 시간 전체에 걸쳐 청취의 자리가 된다면, 이 재해석이 가장 명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리는 본당의 신앙교육이다. 더욱이 모든 청소년이 가톨릭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

“Learning and Teaching”, in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T. Fuller(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p.43~62(특히 pp.45~46). 본문에서 말한 ‘세계를 맞아들이는’ 개념은 앞서 인용한 H. Arendt, “The Crisis in Education”에 따른 것이다.

60 교황청 문화교육성, 앞의 책, 26항; 교황청 문화교육성, 『재삼천년기 문턱에 선 가톨릭 학교』(*The Catholic School on the Threshold of the Third Millennium*, 1997, 12, 28),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14항.

니므로, 본당의 신앙교육은 가톨릭 학교의 형성적 동반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 탁월한 교육을 보완하는 고유한 가능성을 지닌다. 곧, 본당의 주일학교와 청소년 미사,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평범한 하루가 하느님 앞에서 형성의 시간임을 일러 주는 고유한 자리가 된다. 특히 피정과 여름 신앙 캠프처럼 평상시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는 경험은 강력한 재해석의 계기가 된다. 일상 의 크로노스에서 물러나 마련된 문턱의 시간 안에서, 청소년은 측정과 경쟁의 논리가 멈춘 자리에 서서 자신의 시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⁶¹

본당의 신앙교육이 지닌 힘은, 그것이 청소년의 시간에 새로운 독해의 문법을 건네준다는 데 있다.⁶²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그 시간을 성과로 환산되는 크로노스로 읽을 것인지 하느님 앞에서 빚어지는 카이로스로 읽을 것인지에 따라 삶의 무게는 전혀 달라진다. 본당은 전례와 기도, 말씀의 나눔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좌절과 기다림의 시간조차 복음 안에서 다시 읽도록 돕는다. 특히 교회의 전례력은 입시의 시간표와는 전혀 다른 시간의 질서를 살아가게 한다. 대림의 기다림, 사순의 성찰, 부활의 기쁨, 한 주의 노동을 멈추는 주일의 쉼은 성과로 환산되지 않는 시간을 몸에 새기며, 크로노스 한복판에서 카이로스를 기억하게 하는 교회 고유의 교육 자원이 된다.⁶³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신앙교육의 현장에서 구현하는 일이며, 입시의 크

61 V.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Chicago: Aldine, 1969, pp.94~130;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20~224항.

62 청소년기의 종교적 참여와 신앙 공동체가 삶의 의미 형성과 긍정적 발달에 유의하게 기여한다는 대규모 실증 연구로는 C. Smith with M. L. Denton, *Soul Searching: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American Teenag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218~258.

63 교회 전례주년이 빚어내는 고유한 시간 질서에 관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1963. 12.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102~111항.

로노스에 갇힌 일상 안으로 형성의 카이로스를 다시 들여오는 일이다. 다만 이 재해석은 언제나 청소년의 구체적 시간에 대한 청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지속: 공간 논리를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

넷째 계기는 지속(持續)이다. 지속은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이어지는 관계의 시간 안에서 동반이 계속되는 것으로, 공간 논리의 지배에 대한 응답이다. 결과를 선점하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견디는 인내, 곧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한 ‘공간보다 위대한 시간’의 논리가 지속이라는 계기 안에서 구현된다. 이 지속이 가장 풍부하게 무르익는 자리는, 청소년이 단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서는 교회의 다양한 공동체이다. 본당의 신앙교육이 재해석의 자리라면, 지속의 자리는 그보다 넓다. 청소년 단체와 또래 사목, 가톨릭 학생회, 봉사와 연대의 모임처럼 청소년이 스스로 환대하고 섬기며 이끄는 자리들에서, 동반은 일회적 돌봄을 넘어 청소년 자신이 다른 이를 동반하는 능동적 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⁶⁴ 이는 교회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청소년을 사목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늘의 주역으로 부른다.⁶⁵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이 다양한 공동체에서 사목자의 역할은 프로그램 진행자에서 함께 걷는 동반자로, 나아가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뒤에서 떠받치는 조력자로 재정의된다. 이러한 능동적 지속의 동반이 가장 큰 규모로 펼쳐질 사건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64 서울대교구 햇살사목센터가 운영해 온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청소년·청년 기도모임’이 그 한 예이다. 〈30년간 이어온 한국 청년 떼제기도… 이제 자녀에게로〉, 《가톨릭평화신문》, 2025년 10월 22일, <https://news.cpbk.co.kr/article/1167741>.

65 교황 프란치스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64항; 174항.

청년대회(World Youth Day)이다. 세계청년대회는 청소년이 전 세계의 또래와 함께 걸으며 환대하고 준비하고 이끄는 능동적 주체가 되는 자리이다. 청소년이 자신의 고립된 시간을 보편적 연대의 지평 안에 두는 이 경험의 의의는, 행사의 규모 자체보다 그 전후의 일상적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이 주체로 서는 시간과 얼마나 깊이 이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살핀 동반의 네 계기와 그 자리, 그리고 각 계기가 응답하는 축과 위기를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네 축에 응답하는 동반의 네 계기와 그 자리

동반의 계기 (Ⅳ장)	응답하는 위기 (Ⅲ장)	이론 축 (Ⅱ장)	우선적 자리
현존	영혼의 시간의 붕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시간 (distentio/intentio)	가정
청취	형성 시간의 박탈	교육철학의 형성 (Bildung)	가톨릭 학교
재해석	카이로스의 상실	성경의 카이로스	본당의 신앙교육
지속	공간 논리의 지배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간 > 공간	다양한 교회 공동체

이 표가 보여 주듯이, 본 연구의 이론(Ⅱ장)·진단(Ⅲ장)·처방(Ⅳ장)은 네 축을 중심으로 하나의 일관된 구조를 이룬다. 다만 네 계기를 결여한 채 청소년을 위한 활동만 늘리는 것으로는 동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현존 없는 프로그램, 청취 없는 지도, 재해석 없는 위로, 지속 없는 일회성 행사는 동반의 외형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 곧 동반의 자리란 특정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니라,

네 계기가 구체적 시간과 관계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의 가톨릭 교육의 양식(樣式)이다. 네 계기는 각기 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뿌리내리지만 실제 동반에서는 분리되지 않는다. 가정에도 자녀의 하루를 다시 읽어 주는 재해석이, 본당에도 판단 없이 함께 있어 주는 현존이, 학교에도 흔들리는 시간을 견뎌 주는 지속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시작된 현존이 가톨릭 학교의 일상적 청취로 넓어지고, 본당의 신앙교육이 건네는 재해석과 공동체의 지속이 그 위에 더해질 때, 청소년은 자신의 시간이 혼자 견뎌야 할 것이 아님을 경험한다. 그 가운데서도 가톨릭 학교는 본 연구가 특별히 주목하는 자리이다. 학교는 청소년의 일상적 시간을 가장 깊이 함께하는 자리이자 학교의 원형을 입시의 한복판에서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자리로서, 가정과 본당의 동반을 일상의 시간 전체로 잇는 결절점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네 계기는 가톨릭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넘어 한국 교육 일반에 대한 전망으로 번역될 수 있다. 현존은 학생을 성적에 앞서 한 인격으로 마주하는 담임과 부모의 관계 문화로, 청취는 결과 중심 평가를 보완하며 학생의 성장 서사를 끝까지 들어 주는 과정 중심의 평가와 상담으로, 재해석은 방학·전환기·졸업과 같은 문턱의 시간을 성찰의 계기로 되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속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이어지는 멘토링과 학교-지역간 연계의 구조로 각각 옮겨질 수 있다. 시간을 측정의 대상에서 형성의 터전으로 되돌리는 일은 종교의 언어를 공유하지 않는 학교에서도 가능하고 또 필요하며, 이 번역 가능성이야말로 가톨릭 교육의 시간 이해가 한국 교육 일반에 건넬 수 있는 고유한 기여이다.

V. 논의 및 결론

■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시간 위기를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가 무너진 문제, 곧 형성의 시간을 잃어버린 위기로 진단하였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시간을 다시 보게 하는 네 축을 세웠다. 성경의 ‘카이로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 그리고 교육철학의 ‘형성’ 개념이 그것이다. 이 네 축은 한결같이, 시간이 측정되어 소진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안에서 빚어지는 형성의 카이로스임을 가리킨다. 이어 본 연구는 이 네 축을 그대로 분석의 틀로 삼아, 한국 청소년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상실, 영혼의 시간의 붕괴, 공간 논리의 지배, 형성 시간의 박탈이라는 네 차원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음을, 객관적 통계 자료와 함께 밝혔다.

이 진단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로 뒷받침된다. 무엇보다 학업 성취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이면서 삶의 만족도에서는 OECD 평균을 밑도는 역설은, 위기의 근원이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형성의 시간이 측정의 시간에 잠식당하는 사태에 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그 회복의 길로 본 연구는 동반의 자리를 제안하였다. 동반은 청소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함께 걷는 일이며, 현존·청취·재해석·지속이라는 네 계기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이 네 계기를 앞서 진단한 네 차원의 위기에 각각 대응시킴으로써, 이론·진단·처방이 네 축을 중심으로 하나의 일관된 구조를 이룸을 제시하였다. 가정은 현존이, 가톨릭 학교는 청취가, 본당은 재해석이, 그리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교회 공동체는 지속이 가장 먼저 뿌리내리는 자리이며, 이 자리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청소년의 시간을 함께 떠받친다. 한국 청소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가르침은, 그들의 평범

하고 고단한 시간이 이미 형성과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주로 사회과학적 자료로 진단되어 온 한국 청소년의 고통을 시간이라는 깊은 범주로 재서술하고, 그것을 신학과 교육철학을 통합하는 가톨릭 교육의 관점에서 해명하였다. 둘째, 서로 다른 전통에서 온 네 축을 하나의 분석 틀로 통합하고, 그 틀을 진단에서 처방까지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가톨릭 교육적 성찰이 교육 현실의 구체적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셋째, 동반의 자리라는 실천 원리를 가정·가톨릭 학교·본당과 다양한 교회 공동체라는 구체적 장으로 연결함으로써, 이론적 성찰을 사목적·교육적 실천으로 번역하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성찰의 성격을 지니며,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도 따른다. 첫째, 본 연구는 개념적 재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성찰이므로, 통계 자료를 인과적 논증이 아닌 현상 진단의 배경으로만 사용하였고, 동반의 효과나 청소년의 시간 경험 변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지는 못하였다. 가톨릭 학교의 교육과정과 시간 경험의 관계, 교사의 동반 실천 사례, 종교 수업이 청소년의 시간 이해에 끼치는 영향 등은 본 연구가 마련한 틀 위에서 실증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주제들이다. 둘째, 본 연구의 신학적 자원은 가톨릭 전통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가톨릭 교육의 언어가 신앙 내부에 머물지 않고 존엄·의미·관계·기다림이라는 보편적 교육 언어로 번역될 때, 종교적 무관심 속의 청소년에게도 동반의 통찰이 가닿을 수 있다. IV장 말미에서 그 번역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교육과정과 제도의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일은 후속 연구로 남는다. 셋째,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한국 청소년의 신앙과 시

간 이해에 미칠 영향은 그 자체로 별도의 구체적인 실증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학문적 후속 작업에 앞서 먼저인 것은, 오늘 입시의 시간에 갇혀 소진되는 청소년 곁에 그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함께 걷는 어른의 현존이다. 본 연구가 끝내 전하고자 한 명제는 단순하다. 청소년의 시간은 소진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한 인격이 빚어지는 형성의 카이로스이며, 그 카이로스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열린다는 것이다. 측정과 성과의 크로노스가 청소년의 하루를 통째로 삼킨 시대에, 가톨릭 교육이 건넬 수 있는 가장 깊은 응답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함께 걷는 시간’ 그 자체이다. 청소년을 위한 모든 교육과 사목은, 바로 이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진리 위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

◆ 교회 문헌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1963. 12.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 _____,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1965. 12. 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 교황청, 『가톨릭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1997. 8. 15),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리교육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 11. 2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 _____,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2016. 3. 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 _____,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 2018. 3. 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 _____,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 2019. 3. 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 교황청 문화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The Catholic School*, 1977. 3. 19),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23~61쪽.
- _____, 「제삼천년기 문턱에 선 가톨릭 학교」(*The Catholic School on the Threshold of the Third Millennium*, 1997. 12. 28),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교회 문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 302~319쪽.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004. 10. 2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국내 문헌

1) 저서 및 논문류

강문비·이우걸·송주연, 「학생이 지각한 부모 성취압력과 자녀의 학업성취, 시험 불안,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심리연구』 35/2(2021), 365~392쪽.

강창동, 「한국의 편집증적 교육열과 신분 욕망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14/2(2008), 5~32쪽.

이건만,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교육사회학연구』 17/4(2007), 63~85쪽.

장윤옥·정서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전략의 조절효과」, 『중등교육연구』 65/1(2017), 195~223쪽.

2) 번역서

Groome, T. H., 『생명을 위한 교육: 모든 교사와 부모를 위한 가톨릭의 영적 비전』, 조영관·김경이·우정원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21.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최민순 옮김, 바오로딸, 2015.

3) 신문류

〈30년간 이어온 한국 청년 폐제기도… 이제 자녀에게로〉, 《가톨릭평화신문》, 2025년 10월 22일, <https://news.cpbk.co.kr/article/1167741>.

◆ 국외 문헌

Arendt, 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_____, "The Crisis in Education", in *Between Past and Future: Eight Exercises in*

- Political Thought*, New York: Viking Press, 1961, pp.173~196.
- Bauman, Z.,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Press, 2000.
- Berman, S. L., Weems, C. F., & Stickle, T. R., "Existential Anxiety in Adolescents: Prevalence, Structure,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Symptoms and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2006), pp.303~310.
- Borghesi, M., *The Mind of Pope Francis: Jorge Mario Bergoglio's Intellectual Journey*, B. Hudock(trans.),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2018.
- Brueggemann, W., *The Psalms and the Life of Fait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 Bruford, W. H., *The German Tradition of Self-Cultivation: 'Bildung' from Humboldt to Thomas Man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Buber, M., *I and Thou*, W. Kaufmann(tra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 Cullmann, O., *Christ and Time: The Primitive Christian Conception of Time and History*, rev. ed., F. V. Filson(trans.), London: SCM Press, 1962(재간 Eugene: Wipf & Stock, 2018).
- Delling, G., "καρπός", in G. W. Bromiley(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Abridged in One Volume*, Grand Rapids, MI: Eerdmans, 1985, pp.344~345.
- Frankl, V. E.,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Press, 1963.
- Fuchs, T., "Temporality and psychopathology",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 12/1(2013), pp.75~104.
- Gadamer, H.-G., *Truth and Method*, J. Weinsheimer/D. G. Marshall(trans.), 2nd rev. ed., London: Continuum, 2004.
- Galot, J., *Who Is Christ? A Theology of the Incarnation*, M. A. Bouchard(trans.), Chicago: Franciscan Herald Press, 1981.
- Guardini, R., *The Lord*, E. C. Briefs(trans.), Chicago: Regnery, 1954.
- Havighurst, R. J.,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 Green, 1953.
- Heilbronn, R., “Kairos and phronesis in teaching well”,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59/3-4(2025), pp.718~727.
- Humboldt, W. von, “Theory of Bildung”, G. Horton-Krüger(trans.), in *Teaching as a Reflective Practice: The German Didaktik Tradition*, I. Westbury, S. Hopmann & K. Riquarts(eds.), Mahwah, NJ: Lawrence Erlbaum, 2000, pp.57~61.
- Hyun, E. & Marshall, J. D., “Teachable-Moment-Oriented Curriculum Practi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1(2003), pp.111~127.
- MacIntyre, A.,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3rd ed.,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 Noddings, N.,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2.
- Nouwen, H. J. M., *The Wounded Healer: Ministry in Contemporary Society*, Garden City, NY: Doubleday, 1972.
- O'Daly, G., *Augustine's Philosophy of Mind*, London: Duckworth, 1987.
- Oakeshott, M., “Learning and Teaching”, in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T. Fuller(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p.43~62.
- Pieper, J.,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A. Dru(trans.), New York: Pantheon Books, 1952(원저 Muße und Kult, 1948). 국역본: 요셉 피퍼, 『여가와 경신』, 김진태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 Ricoeur, P., *Time and Narrative*, vol. 1, K. McLaughlin/D. Pellauer(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Ricoeur, P., *Oneself as Another*, K. Blamey(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Rosa, H., *Social Acceleration: A New Theory of Modernity*, J. Trejo-Mathys(tra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 Smith, C., with Denton, M. L., *Soul Searching: The Religious and Spiritual Lives of*

- American Teenag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Turner, V.,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Chicago: Aldine, 1969.
- van Manen, M.,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 Westermann, C.,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K. Crim/R. N. Soulen (trans.),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 기타 자료

- OECD, PISA 2022 Results (Volume I and II) Country Notes: Korea, Paris: OECD Publishing, 2023.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isa-2022-results-volume-i-and-ii-country-notes_ed6fbcc5-en/korea_4e0cc43a-en.html.
- 교육부·질병관리청,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2015 - 2024. <https://doi.org/10.56786/PHWR.2025.18.46.3>
-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202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2025.



■ 이 연구는 한국 청소년이 겪는 시간의 위기를 신학과 교육철학을 통합하는 가톨릭 교육의 눈으로 읽고, 그 회복의 길을 ‘동반(同伴)의 자리’라는 교육적·사목적 원리로 제안한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은 입시 구조 속에서 시간을 소진할 자원으로만 경험하며,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자살은 십수 년째 이 연령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이 위기를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가 무너진 문제, 곧 자신의 시간을 한 인격으로 형성되어 가는 시간으로 살아낼 지평을 잃은 문제로 진단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성경의 카이로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시간’(distentio animi와 intentio),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는 원리, 교육철학의 형성(Bildung) 개념이라는 네 축을 세운다. 이 틀로 볼 때 청소년의 시간 위기는 카이로스의 상실, 영혼의 시간의 붕괴, 공간 논리의 지배, 형성 시간의 박탈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붕괴로 드러난다. 회복의 실천 원리인 동반은 청소년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 함께 걷는 일로, 현존·청취·재해석·지속의 네 계기로 이루어지며, 가정과 분당, 특히 가톨릭 학교가 그 핵심적인 자리이다.

주제어: 청소년, 시간, 카이로스, 크로노스, 가톨릭 교육, 가톨릭 학교, 형성, 동반



A Catholic Educational Reflection on Korean Adolescents' Experience of Time: From the Chronos of College Entrance Exams to the Kairos of Accompaniment

Kim, Hong Joo

(Gyeseong High School · Catholic Education · Teacher)

■ This study examines the temporal crisis facing Korean adolescents through the integrated lens of Catholic education — that is, combining theology and philosophy of education — and proposes the concept of “places of accompaniment” as an educational and pastoral principle for recovery. Due to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Korean adolescents experience time as only a resource to be expended. Indeed,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crease year after year among adolescents, while suicide has remained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this age group for over a decade. Yet this study diagnoses the crisis not as a “shortage of time” but as a “collapse of the meaning of time” — the loss of any horizon in which adolescents might experience their own time as a period for being formed into person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stablishes four theoretical pillars: the biblical notion of Kairos, Augustine's *distentio animi*, Pope Francis's notion that "time is greater than space," and the educational concept of formation (*Bildung*). When assessed via this framework, the crisis emerges as a single collapse wherein the loss of Kairos, the breakdown of the soul's temporal integration (*distentio* bereft of *intentio*), the dominance of spatial logic, and the deprivation of formative time all occur at once. As a practical principle for recovery, accompaniment entails entering into adolescents' time and walking with them through four moments — namely, presence, listening, reinterpretation, and continuity — with the family, the parish, and especially, the Catholic school as central locations.

Keywords: adolescents, time, Kairos, Chronos, Catholic education, Catholic school, formation (*Bildung*), accompaniment

- ◎ 투고 접수 2026. 07. 05.
- ◎ 심사 완료 2026. 08. 03.
- ◎ 게재 결정 2026. 08. 05.